

《빛의 제국》 중국어 번역본 의태어 비교 분석 : 대륙본과 타이완본*

정 영 지**

<目次>

I. 들어가는 말	2. 다르게 번역
II. 의태어 중역 양상	III. 나오는 말
1. 같게 번역	

I. 들어가는 말

韓中수교 전에는 한국문학 작품들이 중국에서 번역된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으로 칭함)이 출범한 이후 한중간의 번역사업은 진일보한 발전을 맞게 된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번역원이 자금을 지원하여 중국어로 번역한 작품이 187건에 달하며, 번역된 작품 중 현대소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에 달한다. 현대소설을 기준으로 번역원이 지원하여 번역된 작품은 2016년까지는 대륙에 집중되어 있다가, 2017년부터는 점차 타이완으로까지 확대되어 2017년에 4편, 2018년에 9편, 2019년에 6편, 2020년 10편이 번역되어졌다.¹⁾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9207).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세계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한국문학번역금고’(1996년 설립)를 모체

대륙과 타이완에서 번역된 작품들을 비교하며 살펴보던 중 김영하의 《빛의 제국》이 두 지역에서 모두 번역되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대륙에서는 2012년 薛舟가, 타이완에서는 2019년 盧鴻金이 각각 번역하였다. 한국어 의태어의 中譯양상에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비교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터라, 두 번역본에서 한국어 의태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원천텍스트와 두 번역본을 서로 대조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 번역에 차이가 제법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역본의 의태어 중역양상을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전에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현재까지는 없었다.

비교 분석 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먼저 원천텍스트에서 의태어가 사용된 문장을 모두 찾아내고, 이를 두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문장단위로 정리한다. 그리고 같게 번역한 것과 다르게 번역한 것을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고, 정리된 표에 의거하여 비교 분석 작업을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 단위로 정리한 예문들은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모두 인용하지는 않고 비교 분석 작업 시 필요한 경우 짧게 인용하고, 표로 정리한 같게 번역한 것과 다르게 번역한 자료는 모두 인용하도록 하겠다.

II. 의태어 중역 양상

원천텍스트 《빛의 제국》속에 출현하는 의태어는 약 396회이다. 대륙본 《光的帝国》에서 의태어를 번역한 것은 309회이며, 번역하지 않은 것

로 2001년 출범했다. 20년 가까운 노력을 통해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 소개는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40여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번역원 지원 출간도서가 1483건인데, 영어 262건, 중국어 187건, 프랑스어 173건, 일본어 170건, 독일어 126건, 스페인어 105건, 러시아어 97건, 베트남어 72건 등등에 이른다.

이 87회이다. 타이완본 《光的帝國》에는 321회를 번역하고, 75회를 번역하지 않았다. 원천텍스트에서 사용한 의태어의 종류는 138개인데²⁾, 살쩍(32회), 슬쩍(31회), 문득(18회), 훗씬(17회), 씹(15회), 벌떡(14회), 이리저리(12회), 꺾(11회), 깜짝(9회), 힐끗(9회) 등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태어이다³⁾ 두 번역본에서 원천텍스트의 의태어를 번역한 양상을 같이 번역, 다르게 번역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같이 번역

두 번역본에서 같이 번역한 것은 131회인데, 이 가운데 112회는 의태어만 단독으로 번역해 낸 것이고, 19회는 의태어와 수식받는 동사 혹은 앞뒤의 문장성분을 함께 번역해 낸 것(이하 기타로 칭함)이다.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중첩한 의태어는 중첩하지 않은 의태어와 동일한 종류로 처리한다. 예컨대 깜짝(깜짝깜짝), 꾸벅(꾸벅꾸벅), 꺾(꺾꺾), 바삭(바삭바삭), 북(북북), 비쪽(비쪽비쪽), 빙(빙빙), 성큼(성큼성큼), 슬쩍(슬쩍슬쩍), 쪽(쪽쪽), 착착(착착착), 텅(텅텅), 펼쩍(펼쩍펼쩍) 등이다.
- 3) 이 외에 가닥가닥, 가득(4회), 간질간질, 경중경중, 고래고래, 구불구불, 군데군데(2회), 깜빡(2회), 꺾(3회), 꼼짝, 팡, 팡팡, 꾸벅꾸벅(3회), 꾸역꾸역(2회), 널름, 뉘엿뉘엿, 달삭달삭, 더덕더덕, 덜컹, 데구르르, 도란도란, 둘둘, 둥둥(2회), 덩성덩성, 딱(8회), 또박또박, 푹푹, 물끄러미(6회), 바들바들, 바삭(5회), 바짝(2회), 버럭, 번뜩, 번쩍(4회), 보글보글, 부글부글, 부르르, 북북(2회), 불끈(2회), 불룩, 불쑥(5회), 비질비질, 비쪽(2회), 비틀비틀, 빙빙(2회), 빙긋, 빙긋이, 빠끔, 빠끔, 삐죽삐죽, 살살, 셀쪽, 생긋, 선뜻(3회), 성큼성큼(7회), 스투룩(2회), 스멀스멀(2회), 스윽, 슬슬(2회), 슬그머니(3회), 슬며시, 실쪽, 씹, 쑤욱(2회), 쑥(4회), 쓰윽, 안절부절, 어슬렁, 어슴푸레, 얼핏(3회), 엉거주춤, 오들오들, 오물오물, 와락, 우두커니, 우물우물(3회), 우수수, 울컹(3회), 으슬으슬, 잘근잘근, 절레절레(5회), 주질주질, 주춤주춤, 줄줄, 지그시(4회), 지글지글, 질질(2회), 질근, 쭈뼛쭈뼛, 쭈욱, 쪽(4회), 찰끔, 착, 착착(3회), 철철, 축, 킁, 쿡쿡, 쿡(4회), 탈탈, 텅(4회), 툭, 통통, 파르르, 퍼덕, 펼쩍(2회), 펼 펼, 평평, 푹(2회), 피식(2회), 한들한들, 허겁지겁, 허둥지둥(2회), 헤벌레, 흘랑, 화들짝(3회), 확(4회), 활짝(4회), 핵, 흑, 휘청, 휙(3회), 횡, 흔들흔들, 흘깃, 힐끔(3회), 힘껏 등이다.

1) 의태어만 같게 번역

의태어만 단독으로 같게 번역해 낸 112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의태어만 같게 번역4)

원천텍스트	번역본	원천텍스트	번역본
가다가다	支离破碎(支離破碎)	경중경중	蹦蹦跳跳(蹦蹦跳跳)
고래고래	高声(高聲)	깜짝	(吓了)一跳(嚇了)一跳)2
꼬박	通宵(通宵)	꼭	紧紧(緊緊) 2, 紧(緊)
꼭	使劲(使勁) 3, 紧(緊)3	딱	就(就), 突然(突然)
문득	突然(突然) 13	물끄러미	茫然(茫然)
마짜	紧紧(緊緊)	번쩍	一把(一把)
벌떡	猛然(猛然) 2, 突然(突然) 2, 猛地(猛地) 2	부글부글	噗嚕噗嚕(噗嚕噗嚕)
불쑥	突然(突然) 5	비틀비틀	搖搖晃晃(搖搖晃晃)
빙긋이	微微(微微)	살살	輕輕(輕輕)
살짝	漂漂(飄飄)5, 輕輕(輕輕) 7, 稍微(稍微) 2, 有点儿(有點)	성큼성큼	大步(大步) 3
스르륵	自动(自動)	슬슬	悄悄(悄悄)
슬그머니	悄悄(悄悄) 2	슬쩍	悄悄(悄悄) 7, 輕輕(輕輕) 4, 微微(微微), 偷偷(偷)
어슬렁	慢吞吞(慢吞吞)	어슴푸레	隱約(隱約)
얼핏	猛然(猛然), 乍(乍) 2	울컥	突然(突然)

4) 도표의 번역본에서 앞에 든 예시는 대륙본이고, 괄호안의 것은 타이완본이다. 간체와 번체의 차이가 있어 두 예를 다 들기로 한다. 예시 뒤의 숫자는 출현 회수를 나타내며, 1회 출현한 것은 숫자를 표기하지 않았다. 아래에 있는 모든 도표들도 이 형식을 따른다.

5) ‘漂漂’와 ‘飄飄’는 동의어임으로 같게 번역한 것으로 처리한다.(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中韓辭典》 참조)

원천텍스트	번역본	원천텍스트	번역본
으슬으슬	瑟瑟(瑟瑟)	이리저리	千方百计(千方百計), 四处(四處)
잘근잘근	碎片(碎片)	지그시	轻轻(輕輕) 3
지글지글	吱吱(吱吱)	질끈	紧紧(緊緊)
콧콧	猛地(猛地)	콧	重重(重重)
툭	轻轻(輕輕)	한들한들	慢悠悠(慢悠悠)
허겁지겁	慌忙(慌忙)	확	紧(緊)
훨씬	多了(多了), 更(更) 4, 更加(更加), 许多(許多)	힐끗	偷偷(偷偷), 悄悄(悄悄) 3
힘껏	用力(用力)		

위의 도표에서 정리한 의태어 중에서 1회 혹은 여러 회 출현하여도 같게 번역한 것만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 절에서 설명하고, 같게 번역한 것과 다르게 번역한 것이 모두 있는 의태어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가다가닥’은 2회 출현하는데, ‘머리카락이 불을 따라 힘없이 가다가닥 흔들리고 있었다’의 ‘가다가닥’은 두 번역본 모두 번역하지 않았고, ‘가다가닥 잘려 나간 채’의 ‘가다가닥’은 ‘산산이 흩어지다’란 의미의 성어 ‘支離破碎’로 번역했다.⁶⁾ 긴 다리를 모으고 자꾸 위로 솟구쳐 뛰면서 걷는 모양을 묘사하는⁷⁾ ‘경중경중’은 ‘蹦蹦跳跳’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의 ‘고래고래’는 ‘高聲’으로 번역하여 원천텍스트의 의미를 살리고 있다. ‘꼭’은 ‘꼭 잡았다, 꼭 끼어왔다, 꼭 껴안고’로 3회 출현하는데, 두 번역본 모두 ‘緊緊’과 ‘緊’으로 번역하였다. 큰 거품이 잇달아 일어나는 모양을 묘사하는 ‘부글부글’을 ‘撲嚙撲嚙’로 번역하였다. ‘불쑥’은 5회 출현하는데 두 번역본 모두 ‘突然’으로 5회 번역하고 있고, ‘비틀비틀’은 ‘좌우나 앞뒤로

6) 의태어를 예로 들어 설명할 때는 번역본의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두 번역본을 공통으로 언급할 때는 번체자를 사용한다.

7) 원천텍스트 속의 의태어 뜻풀이는 《한국어 시능말 사전》을 참조한다. (박선자·김문기·정연숙, 《한국어 시능말 사전》, 세종출판, 2014.)

흔들리다'란 의미의 '搖晃'의 중첩형인 '搖搖晃晃'으로 번역하고 있다. '빙긋이 웃었다'의 '빙긋이'를 '微微'로, '살살 쓰다듬은'의 '살살'은 '輕輕'으로 번역하였다. '스르륵'은 2회 출현하는데, '스르륵 줄음이'에서는 두 번역본 모두 생략하였고, '문은 스르륵 닫혔다'의 '스르륵'은 '自動'으로 번역하였다.

'어슬렁 걸어나와'의 '어슬렁'을 '느릿느릿하다'란 의미의 ABB형 형용사 '慢吞吞'으로 번역하였다. '어슴푸레 떠오르는 해를'의 '어슴푸레'를 '희미하다, 어슴푸레하다'란 의미의 형용사 '隱約'로 번역하였다. '얼핏'은 3회 출현하는데, '얼핏 훑쳐 본'의 '얼핏'은 '猛然'으로 번역했고, '얼핏 보면'의 '얼핏'은 '갑자기, 돌연히'란 의미의 부사 '乍'로 2회 번역하고 있다. '얼핏'은 '지나가는 곁에 잠깐 나타나는 모양'과 '생각이나 기억 따위가 문득 떠오른 모양' 두 의미가 있는데, 원천텍스트의 의미는 전자를 표현한 것이고, 번역본은 후자의 뜻에 가깝게 번역했다. '울컥'은 3회 출현하는데, '울컥 토했다'의 '울컥'은 두 번역본 모두 번역하지 않았고, '울컥 눈물이 솟았다'에서는 문장전체를 '눈물이 왈칵 쏟아지다'란 의미의 성어 '奪眶而出'로 번역하였고, '울컥, 감정이 북받쳐 올라'의 '울컥'은 '突然'으로 번역하고 있다. '으슬으슬 떨렸다'의 '으슬으슬'은 떠는 모양을 묘사하는 형용사 '瑟瑟'로 번역하였다.

'잘근잘근 찢은'의 '잘근잘근'은 '조각, 부스러기'를 나타내는 명사 '撕成碎片'으로 번역했다. '지글지글 타는'의 '지글지글'은 가늘고 높은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吱吱'로 번역했고, '질끈 감고'의 '질끈'은 '緊緊'으로, '콧콧 찌르는'의 '콧콧'은 '猛'으로 번역했다. '툭 쳤다'란 표현은 2회 출현하는데, 한 번은 '輕輕'으로 번역했고, 한 번은 두 번역본 모두 생략하였다. '한들한들 걸어가기 시작했다'의 '한들한들'을 느릿느릿한 모양을 묘사한 ABB형 형용사 '慢悠悠'로 번역했는데, '한들한들'은 가볍게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흔들리는 모양을 묘사한 의태어인데, '慢悠悠'로 번역해서 어린 두 소녀가 가볍게 몸을 흔들며 걸어가는 느낌을 살리고자 한 원천텍스트의 의도를 제대로 번역해내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허겁지겁 자기 잔을 들었다'의 '허겁지겁'은 '황망하다, 허둥지둥하다'란 의미의 형용사 '慌忙'으

로 번역했고, ‘힘껏 들이마시고’의 ‘힘껏’은 ‘用力’로 번역했다.

2) 기타 같게 번역

의태어와 수식받는 동사 혹은 앞뒤에 오는 문장성분과 함께 번역한 경우는 19회 출현하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기타 같게 번역

원천텍스트	번역본
가득(긴)	布满(布滿)
깜짝(놀라)	大吃一惊(大吃一驚) 2
꼼짝(못하고)	动弹不得(動彈不得)
꽉(채우다)	充满(充滿)
도란도란(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有说有笑(有說有笑)
둥둥(떠다니는)	飄浮(漂浮) ⁸⁾
(입이) 바싹바싹(말랐다)	口干舌燥(口乾舌燥)
번쩍(들고)/ (정신이) 번쩍(든)	高举(高舉) / 如梦方醒(如夢初醒) ⁹⁾
살짝(비가)	小雨(小雨)
울컥(솟았다)	夺眶而出(奪眶而出)
(목을) 이리저리(돌려보기도)	四处张望(四處張望)
절레절레(저으며)	摇了搖(搖了搖)
쭈뼛쭈뼛(서는)	怒发冲冠(怒髮衝冠)
쿵(찢렸다)	戳了戳(戳了戳)
텅(빈)	空空如也(空空如也)
화들짝(놀라)	大吃一惊(大吃一驚)
활짝(웃으며)	满面笑容(笑容滿面)

8) ‘飄浮’와 ‘漂浮’는 동의어임으로 같게 번역한 것으로 처리한다.(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앞의 사전” 참조)

9) ‘如梦方醒’과 ‘如夢初醒’은 동의어임으로 같게 번역한 것으로 처리한다.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 참조)

‘꼼짝 못하고’의 ‘꼼짝’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꼼짝 못하게 되다’란 의미의 ‘動彈不得’로 번역했다. ‘꽉 채우다’의 ‘꽉’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充滿’으로 번역했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의 ‘도란도란’은 뒤에 연이어 나오는 문장성분을 다 포함하여 ‘웃음꽃을 피우며 즐겁게 이야기하다’란 의미의 ‘有說有笑’로 번역하고 있다.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는 기분은 참으로 오랜만이지만’의 ‘쭈뼛쭈뼛’은 앞뒤의 문장성분을 포함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다, 노발대발하다’란 의미의 ‘怒髮衝冠’으로 번역했다. 원천텍스트 속에서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는 것은 무섭거나 놀라서가 아니라 경찰관의 불합리한 대처에 분노한 장면을 표현하면서 사용하고 있어 두 번역본이 의미를 잘 살려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다르게 번역¹⁰⁾

두 번역본에서 다르게 번역한 것은 모두 212회인데, 이 중 의태어만 다르게 번역한 것은 150회이고, 의태어와 수식받는 동사 혹은 앞뒤에 오는 문장성분과 함께 번역한 것(이하 기타로 칭함)이 62회이다. 의태어만 단독으로 번역한 150회 중 두 번역본에서 모두 번역해 낸 것은 96회이고, 54회는 한 번역본은 번역했으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번역하지 않은 경우이다. 기타 다르게 번역한 62회 중 두 번역본이 모두 번역한 것은 47회이고, 15회는 한 번역본은 번역했으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번역하지 않은 경우이다.

1) 의태어만 다르게 번역

의태어만 다르게 번역한 경우는 150회 출현하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

10) 이 절에서는 두 번역본에서 각각 다르게 번역한 것과 한 번역본에서는 번역을 하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고 생략한 것도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같게 번역, 다르게 번역한 것을 모두 갖고 있는 의태어는 이 절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과 같다.

〈표 3〉 의태어만 다르게 번역¹¹⁾

원천텍스트	번역본	원천텍스트	번역본
간질간질	痒痒(×)	구불구불	弯弯曲曲(蜿蜒曲折)
군데군데	×(四處)	깜빡	突然(×) 突然(不知不覺)
깜짝	×(大為), ×(一跳)	꾸벅꾸벅	点头(連連), ×(一點一點)
꾸역꾸역	×(不停)	꼭(꼭꼭)	×(緊), 紧(×) 2, 使劲(用力)
늉냏늉냏	慢吞吞(慢慢)	덜컹	猛然(陡)
듬성듬성	稀稀落落(零星)	딱	正好(剛好)
또박또박	一字一顿(清楚)	뚝뚝	簌簌(滴滴)
문득	突然间(突然), 突然间(×), 突然(×), 忽然(突然間), 突然(突然間)	물끄러미	怔怔(出神) 3, 茫然(愣愣), ×(怔怔)
바들바들	瑟瑟(哆嗦)	마작	紧(緊緊)
버럭	大(大聲)	번뜩	忽然(突然)
번쩍	猛地(一把)	벌떡	猛地(迅速), 突然(猛然), 猛地(猛然) 3, 猛地(突然)
보글보글	噗嚕噗嚕(×)	부르르	×(嘟嘟嘟)
북북	使劲(用力)	불끈	立刻(突然), 突然(×)
비질비질	不停(×)	비쭈비쭈	×(高高)
빼꼼	×(露出一條細縫)	삐죽삐죽	尖锐(尖)
살짝	轻轻(輕), 隐隐(隱約), 轻轻(×) 2, ×(略微), 稍许(些微), 稍微(略微), 稍(有點), 微微(略微), 蓦地(微), ×(稍微), 稍微(微微), 轻轻(一絲), 轻轻(微微), ×(一絲), 轻微(些微), 有些(有點), 轻轻(稍微) 2, 轻轻(微)		

11) 아래 표에서 ‘×’는 의태어를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한다.

원천텍스트	번역본	원천텍스트	번역본
생긱	莞尔(微微)	선뜻	忽然(很快), 痛快(爽快)
성큼 (성큼성큼)	飞快(很快), 迅速(×), 大步流星(大步)	스멀스멀	轻轻(暗暗), 慢慢(缓缓)
슬슬	悄悄(×)	슬그머니	轻轻(微微)
슬며시	微微(輕輕)	실쭉	×(撇嘴)
슬쩍 (슬쩍슬쩍)	悄悄(稍微) 3, 悄悄(偷), 不动声色(悄悄), ×(微微), 悄悄(微微), 轻轻(微微), 不动声色(迅速), ×(輕輕), 在无形中(悄悄), ×(悄悄), 用余光(用眼睛餘光), 轻轻(略微), 不动声色(偷偷)		
쭉쭉	使劲(×)	쑥	×(快速)
씩	×(嗤), ×(咧嘴) 5, 莞尔(咧嘴), ×(嗤嗤)	안절부절	坐立不安(不安)
영거주춤	点头哈腰(弓著腰)	오들오들	×(微微)
오물오물	叽里咕噜(慢慢)	와락	猛地(一把)
우두커니	呆(×)	우수수	统统(全部)
이리저리	稀里糊涂(隨著時間), 滴溜溜(到處)	절레절레	不停(不住), ×(不住)
주절주절	逐字逐句(嘟嘟囔囔)	주춤주춤	迟迟疑疑(躊躇)
줄줄	涔涔(×)	지그시	微(緊)
질질	长腔(很長)	찰찰	按部就班(依序), ×(有條不紊)
찔끔	黯然(幾滴)		
통통	很高(×)	파르르	瑟瑟(×)
피식	×(噗嗤), ×(噗哧)	허둥지둥	慌里慌张(慌慌張張), 慌里慌张(慌忙)
헤벌레	灿烂(燦然)	화들짝	一跳(一大跳)
훨씬	多了(更), ×(更加), 得多(更) 2, 更(更加), 更(還要), ×(還要), 远远(遠), 还(更), ×(更)		
휘청	沉重(×)	획	使劲(×)
횡	轰(嗖)	흔들흔들	闪闪烁烁(閃爍)
흘깃	(×)一眼	힐끗	斜着眼睛(一眼), 悄悄(一眼)

위의 표를 바탕으로 하여 두 번역본에서 원천텍스트 속의 의태어를 어떻게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두 번역본에서 모두 번역한 것¹²⁾

‘구불구불 해안을 따라’의 ‘구불구불’을 대륙본은 형용사 중첩형인 ‘彎彎曲曲’로, 타이완본은 뱀 등이 꿈틀꿈틀 기어가는 모양을 묘사한 형용사 ‘蜿蜒’과 ‘구불구불하다’란 뜻의 형용사 ‘曲折’를 연결한 ‘蜿蜒曲折’로 번역하여 원천텍스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잘 묘사하고 있다. ‘깜빡’은 ‘깜빡 잇다’와 ‘깜빡 졸다’ 두 표현이 있는데, 타이완본은 앞문장의 ‘깜빡’은 생략하였으나, 뒷문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란 의미의 성어 ‘不知不覺’로 번역하여 의미를 살렸다. 대륙본은 두 문장 모두 ‘突然’으로 번역하고 있다. ‘꾸벅(꾸벅)’은 3회 출현하는데, ‘꾸벅꾸벅 졸다’의 ‘꾸벅꾸벅’을 대륙본은 한 번은 생략하고 한 번은 ‘點頭’로 번역하였다. 타이완본은 ‘連連’과 ‘一點一點’으로 번역하였다.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고’의 ‘꾸벅’을 타이완본은 생략하였으나, 대륙본에서는 ‘꾸벅’과 앞뒤에 있는 문장 성분을 함께 성어 ‘畢恭畢敬’으로 번역하여,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는 의미를 실감나게 살리고 있다.

‘꼭’은 원천텍스트에 11회 출현하는데, ‘꼭 누르다, 꼭꼭 주무르다’의 ‘꼭(꼭꼭)’을 대륙본은 동사 ‘使勁’으로 4회, 타이완본은 ‘使勁’ 3회, ‘用力’ 1회 번역하고 있다. ‘꼭 다물다’란 문장이 6회 출현하는데, 대륙본은 2회, 타이완본은 3회 생략했다. 번역한 곳은 모두 ‘緊’을 사용했는데, 대륙본은 ‘(咬)緊’으로 3회, ‘緊(閉)’로 1회, 타이완본은 모두 ‘緊(閉)’로 4회 번역하여, 동사 ‘咬’에는 ‘緊’을 뒤쪽에, 동사 ‘閉’에는 앞쪽에 사용하고 있다. 해가 천천히 지는 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뉘엿뉘엿’을 대

12) 한 번역본에서는 번역하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생략하였더라도, 두 번역본에서 모두 번역된 것이 있는 의태어는 ①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②에서는 오로지 한 번역본에서는 번역하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생략한 의태어에 한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륙본은 ABB형 형용사 ‘慢吞吞’으로, 타이완본은 중첩형용사 ‘慢慢’으로 번역하고 있다. ‘덜컹 멈추었다’의 ‘덜컹’을 대륙본은 부사 ‘猛然’으로, 타이완본은 ‘돌연, 갑자기’란 의미의 부사 ‘陡’로 번역하고 있다.

‘이가 빠진 듯 듬성듬성’의 ‘듬성듬성’을 대륙본은 AABB형 중첩형용사 ‘稀稀落落’로, 타이완본은 ‘드문드문하다’란 의미의 형용사 ‘零星’으로 번역하고 있다. ‘딱’은 8회 출현하는데, ‘한 대 딱 때려도, 딱 맞았다, 딱 걸렸 습니다, 딱 꼬집어 얘기 할’의 ‘딱’은 두 번역본 모두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입을 딱 벌린’의 ‘딱’은 앞뒤의 문장성분과 함께 ‘어안이 병병해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있다’란 의미의 성어 ‘瞠目結舌’와 ‘目瞪口呆’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딱 한 번 만이에요’에는 둘 다 ‘就’로, ‘딱 떠오르는’에서는 둘 다 ‘突然’으로, ‘딱 마주치고’의 ‘딱’을 대륙본은 ‘正好’로 타이완본은 ‘剛好’로 번역하고 있다. ‘또박또박 말했다’의 ‘또박또박’을 대륙본은 ‘한 음절 한 음절 딱딱 끊어가며’란 의미의 ‘一字一頓’으로, 타이완본은 ‘清楚’로 번역하였다. ‘권태가 걸음걸음 바짓자락을 타고 푹푹 떨어졌다’의 ‘푹푹’을 대륙본은 눈물 따위가 푹푹 흘러내리는 모양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 ‘簌簌’로, 타이완본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양을 묘사하는 형용사 ‘滴滴’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원천텍스트 속의 ‘푹푹’은 눈물이나 물방울 등의 액체가 떨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권태로움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두 번역본 모두 원천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 번역하지는 못한 듯하다.

‘문득’은 총 18회 출현하는데, 대륙본에서는 ‘突然’으로 16회, ‘突然間’으로 2회, 타이완본은 ‘突然’으로 14회, ‘突然間’으로 2회, 2회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물끄러미’는 6회 출현하는데, ‘물끄러미 바라보다, 물끄러미 내려다보다’의 ‘물끄러미’를 대륙본은 얼이 빠진 모양을 묘사하는 형용사 ‘怔怔’으로 3회,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을 묘사하는 형용사 ‘茫然’으로 2회, 번역하지 않은 것이 1회이다. 타이완본은 ‘넋이 나가다’란 의미의 동사 ‘出神’ 3회, ‘茫然’ 1회, 정신 나간 것처럼 멍하니 있는 모습을 묘사한 형용사 ‘愣愣’ 1회, ‘怔怔’ 1회로 번역하여, 대륙본보다 더 다양한 표현을 사

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의 ‘바들바들’을 대륙본은 ‘在瑟瑟(发抖)’로, 타이완본은 ‘哆嗦著’로 번역하고 있다. 전자는 떠는 모양을 묘사한 형용사 ‘瑟瑟’로 의태어를 단독 번역하고 있으나, 후자는 ‘부들부들 떨다’란 의미의 동사 ‘哆嗦’로 의태어와 수식을 받는 동사를 같이 번역하였다.

‘바짝 (따라)붙었다’의 ‘바짝’을 대륙본은 형용사 ‘緊’과 중첩형 ‘緊緊’으로 번역했고, 타이완본은 중첩형 ‘緊緊’으로만 2회 번역하였다. ‘버럭 소리를 질렀다’의 ‘버럭’을 대륙본은 형용사 ‘大(喊道)’로, 타이완본은 명사 ‘大聲(喊叫)’으로 번역하였다. ‘번쩍 깨달았다’의 ‘번쩍’을 대륙본은 ‘忽然’으로, 타이완본은 ‘突然’으로 번역하였다. ‘번쩍’은 4회 출현하는데, ‘번쩍 안아올렸다’는 두 번역본 모두 의태어 단독의 ‘一把’로, ‘번쩍 들고’는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高擧’로 번역하고 있다. ‘번쩍 들어’의 ‘번쩍’을 대륙본은 부사 ‘猛地’로, 타이완본은 ‘一把’로 번역했다. ‘정신이 번쩍 든’에서는 두 번역본 모두 수식받는 동사를 포함해 ‘막 꿈에서 깨어난 것 같다’란 의미의 성어 ‘如夢方醒(如夢初醒)’으로 번역하고 있다.

‘벌떡 일어나’란 표현은 14회 출현하는데, ‘벌떡’을 대륙본은 ‘猛然’으로 2회, ‘猛地’로 8회, ‘突然’으로 3회, 1회는 번역하지 않았다. 타이완본은 ‘猛然’ 6회, ‘突然’ 3회, ‘猛地’ 2회, ‘迅速’ 1회, 생략 1회,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기세 좋게 휙 일어서다’란 의미의 ‘一躍而起’로 1회 번역하고 있다. 의태어 ‘벌떡’은 대륙본 보다는 타이완본이 훨씬 다양한 형태로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북 피가 날 때 까지 굼어대고’의 ‘북북’은 ‘使勁’과 ‘用力’로 각각 번역하고 있으나, ‘북 찢어’의 ‘북’은 두 번역본 모두 생략하여 의미를 살리지 않고 있다. ‘불끈 힘이 솟았다’의 ‘불끈’은 ‘立刻’와 ‘突然’으로 번역하고 있고, ‘마음속에선 불끈불끈 억하심정도 꿈틀될 테지’의 중첩형 ‘불끈불끈’을 대륙본은 ‘突然’으로 번역했으나, 타이완본은 생략하였다. ‘삐죽삐죽 올린’의 ‘삐죽삐죽’을 대륙본은 ‘뽀죽하고 날카롭다’란 의미의 형용사 ‘尖銳’로, 타이완본은 ‘尖’으로 번역하고 있다.

‘살짝’은 모두 32회 출현하고 있는데, 대륙본은 ‘轻轻’ 15회, ‘稍微’ 5회,

‘有点儿, 稍许, 稍, 微微, 轻微, 有些’ 각 1회 번역하고 있고, 3회 번역하지 않았다. 타이완본은 ‘輕輕’ 8회, ‘稍微’ 5회, ‘有點’ 3회, ‘略微’ 3회, ‘微微’ 2회 ‘微’ 2회, ‘些微’ 2회로 번역하고 있고, 2회 번역하지 않았다. 이외에 ‘살짝 떠오르는’의 ‘살짝’은 두 번역본 모두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모양을 묘사한 형용사 ‘漂漂(飄飄)’로 번역하였고, ‘살짝 풍기는’의 ‘살짝’은 ‘은은하다’란 의미의 형용사 ‘隱隱’과 ‘隱約’로 각각 번역하였다. ‘살짝 비가 뿌리는’에서는 ‘비’와 같이 번역하여 두 번역본 모두 ‘小雨’로 번역하였고, ‘살짝 붉어졌다’의 ‘살짝’은 대륙본은 ‘갑자기’란 의미의 ‘蓦地’로, 타이완본은 ‘微’로 번역하였다. ‘냉소가 살짝 깃드는’의 ‘살짝’을 대륙본은 ‘轻轻’으로, 타이완본은 수량사 ‘一絲(冷笑)’로 번역했고, ‘살짝 고인 눈물’의 ‘살짝’을 대륙본은 번역하지 않았고, 타이완본은 수량사 ‘一絲(淚水)’로 번역하고 있다. ‘생긋 웃었고’의 ‘생긋’을 대륙본은 빙긋 웃는 모양을 묘사하는 형용사 ‘莞尔’로, 타이완본은 ‘微微’로 번역하여, 대륙본이 원천텍스트의 의미를 더 잘 살려 번역한 듯하다. ‘선뜻’은 3회 출현하는데 ‘선뜻 손이 가질 않았다’와 ‘선뜻 외상을 주었다’의 ‘선뜻’은 의태어 단독으로 대륙본은 ‘忽然’과 ‘痛快’로, 타이완본은 ‘很快’와 ‘爽快’로 번역하였다. ‘선뜻 납득할 수가 없었다’의 ‘선뜻’은 뒤에 연이어 나오는 문장성분들과 같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란 뜻의 성어 ‘百思不得其解’와 ‘百思不解’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성큼성큼(성큼)’은 7회 출현하는데, 대륙본은 1회, 타이완본은 2회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사람이 성큼 걷는다’의 ‘성큼’을 대륙본은 ‘大步’ 3회, ‘大步流星, 迅速’ 각 1회로 번역했고, 타이완본은 ‘大步’로 4회 번역했다. ‘차가 성큼 들어서다’의 ‘성큼’은 ‘飞快’와 ‘很快’로 각각 번역하였다. ‘예감이 스멀스멀 콧등을 간질렀다’의 ‘스멀스멀’은 ‘轻轻’과 ‘暗暗’으로, ‘아이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는’에서는 ‘慢慢’과 ‘緩緩’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슬그머니’는 3회 출현하는데, ‘슬그머니 눈을 떴다’의 ‘슬그머니’는 ‘轻轻’과 ‘微微’로 각각 번역했고, ‘슬그머니 다가와’와 ‘슬그머니 내려놓았다’의 ‘슬그머니’는 두 번역본 모두 ‘悄悄’로 번역하였다. ‘슬며시 웃었다’

의 ‘슬며시’를 대륙본은 ‘微微’로, 타이완본은 ‘輕輕’으로 번역하고 있다. ‘슬쩍’은 31회 출현하는데, 대륙본은 4회, 타이완본은 2회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번역한 것을 살펴보면 대륙본은 ‘悄悄’ 12회, ‘轻轻’ 6회, ‘不动声色’ 3회, ‘在无形中, 微微, 偷, 用余光’ 각 1회, ‘슬쩍’과 수식받는 동사를 같이 동사의 중첩형 ‘看了看’으로 2회 번역하였다. 타이완본은 ‘悄悄’ 11회, ‘輕輕’ 5회, ‘微微’ 4회, ‘稍微’ 3회, ‘偷(偷)’ 3회, ‘迅速, 用眼睛余光, 略微’로 각 1회 번역하였다.

‘씩 웃었다’란 문장은 15회 출현하는데, 문장 속의 ‘씩’을 대륙본에서는 8회 번역하지 않았고, 번역한 7회도 빙긋 웃는 모양을 묘사하는 형용사 ‘莞尔’과 ‘얼굴에 미소를 띠다’란 의미의 ‘面帶微笑’로 각 1회, 나머지 5회는 모두 동사의 중첩 ‘笑了笑’로 번역하고 있다. 타이완본은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嗤(嗤)’ 3회, ‘헤헤, 히죽히죽’의 의성어 ‘嘻嘻’ 2회, ‘옴으로 찢어지듯이 입을 벌리다’란 의미의 동사 ‘咧嘴’ 8회, 미소짓는 모양을 묘사한 형용사 ‘笑嘻嘻’ 1회, ‘헤헤거리다’란 의미의 성어 ‘嘻皮笑臉’으로 1회 번역하고 있다. 번역해 낸 결과로 보면 타이완본이 원천텍스트에서 표현하고자한 ‘씩’의 의미를 더 실감나게 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안절부절’을 대륙본은 ‘坐立不安’으로, 타이완본은 ‘不安’으로 번역하였다. ‘엉거주춤 인사를 했다’의 ‘엉거주춤’을 대륙본은 ‘굽실거리다’란 의미의 ‘点头哈腰’로, 타이완본은 ‘허리를 굽히다’란 의미의 동사 ‘弓腰’에 동태조사 ‘著’를 첨가한 ‘弓著腰’로 번역했다. ‘오물오물 씹었다’의 ‘오물오물’을 대륙본은 ‘재잘거리기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叭里咕嚕’로 번역하고 있고, 타이완본은 ‘慢慢’으로 번역하였다. ‘오물오물’은 음식을 입안에 넣고 시원스럽지 아니하게 조금씩 자꾸 씹는 모양을 묘사하는 의태어인데, ‘叭里咕嚕’로 번역하는 것은 원천텍스트의 의미와는 차이가 큰 듯하다. 또 ‘우물우물 씹다’란 문장도 3회 나오지만 두 번역본에서 모두 생략하였다. 이처럼 중국어로 한국어의 음식을 씹는 모양을 묘사하는 의태어 ‘오물오물’ 혹은 ‘우물우물’을 번역할 만한 적당한 표현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와락 그녀를 안았다’의 ‘와락’을 ‘猛地’와 ‘一把’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명함과 펜, 클립, 스테이플러와 딱풀 등이 우수수 떨어져’의 ‘우수수’를 대륙본은 ‘统统’으로, 타이완본은 ‘全部’로 번역했다. 떨어진 물건이 나뭇잎이라면 이러한 번역이 어색하겠지만, 명함이나 펜 클립 등등의 물건들이 모두 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텍스트의 의미를 잘 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리저리’는 12회 출현하는데, 대륙본은 3회, 타이완본은 4회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번역한 양상도 수식받는 동사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 ‘이리저리 흘러흘러 여기까지 온 것이다’의 ‘이리저리’를 대륙본은 ‘제멋대로 이다, 마음대로 이다’란 의미의 형용사 ‘稀里糊涂’로, 타이완본은 ‘隨著時間’으로 번역했고, ‘이리저리 돌려보기도’의 ‘이리저리’는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두 번역본 모두 ‘四處張望’으로 번역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의 ‘이리저리’를 대륙본은 ‘四处’로, 타이완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사방으로 뿔뿔히 흩어지다’란 의미의 동사 ‘四散’으로 번역했다. ‘이리저리 회피하는’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의 ‘이리저리’는 두 번역본 모두 ‘온갖 방법 계략을 다하다’란 의미의 성어 ‘千方百計’와 ‘四处’로 번역했다. ‘이리저리 쿵쿵 부딪히며 내려왔는지’에서는 대륙본은 문장전체를 ‘제멋대로 활기치다. 중형무진 돌진하다’란 의미의 성어 ‘橫冲直撞’로, 타이완본은 의태어만 ‘到處’로 번역하고 있다. ‘이리저리 뛰거든’의 ‘이리저리’를 대륙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亂动’으로, 타이완본은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이리저리 움직이며’는 두 번역본 모두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A來A去’ 형식을 취하여 ‘动來动去’와 ‘跑來跑去’로 각각 번역하였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렀다’의 ‘이리저리’를 대륙본은 물체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모양을 묘사하는 형용사 ‘滴溜溜’로, 타이완본은 ‘到處’로 번역하였다.

‘절레절레’는 5회 출현하는데,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저었다’는 문장에 사용되고 있다. 대륙본에서 의태어만 단독 번역한 것은 ‘连连’ 2회, ‘不停’ 1회이며,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동사중첩형 ‘摇了摇(头)’로 번역한 예가 1회이고, 1회는 생략했다. 타이완본은 의태어 단독으로 ‘不住’ 2회,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동사중첩형 ‘搖搖(搖了搖)’로 3회 번역하였다.

‘주절주절 사주풀이를 이어나갔다’의 ‘주절주절’을 대륙본은 ‘한 글자 한 문구씩’이란 의미의 ‘逐字逐句’로, 타이완본은 ‘끊임없이 중얼거리다’란 의미의 동사 ‘嘟嘟囔囔’으로 번역하였다. ‘주춤주춤 다가갔지만’의 ‘주춤주춤’을 대륙본은 형용사 ‘遲疑’의 중첩형 ‘遲遲疑疑’로, 타이완본은 형용사 ‘躊躇’로 번역하였다. ‘지그시’는 4회 출현하는데, 두 번역본 모두 ‘輕輕’으로 3회 번역하고 있고, ‘지그시 눈을 감고’의 ‘지그시’를 대륙본은 ‘微(閉)’로, 타이완본은 ‘緊(閉)’로 번역했다. ‘지그시’는 ‘눈을 약간 쫓그리듯이 슬그머니 감는 꼴’을 의미함으로 ‘緊’으로 번역하면 원천텍스트 보다 의미가 강한 느낌으로 ‘질끈 눈을 감고’라는 의미에 더 적합할 듯하다. ‘질질’은 2회 출현하는데, ‘질질 끌고’에서는 두 번역본 모두 생략하였고, ‘질질 늘어졌다’의 ‘질질’을 대륙본은 ‘떼지 않고 잇달아 붙여서 내는 목소리’란 의미의 ‘(拖着)长腔’으로, 타이완본은 ‘(拖得)很長’으로 번역하였다. ‘찔끔 눈물을 흘렸다’의 ‘찔끔’을 대륙본은 울적한 모양을 묘사한 ‘黯然’으로, 타이완본은 ‘幾滴’로 번역하고 있는데, 타이완본의 번역인 ‘幾滴’가 원천텍스트의 의미를 더 잘 살리고 있는 듯하다.

‘착착(착착착)’은 3회 출현하는데, ‘착착 차려입기 시작했다’의 ‘착착’을 대륙본은 ‘순서에 따라 규정대로 진행시킨다’란 의미의 성어 ‘按部就班’으로, 타이완본은 ‘依序’로 번역했고, ‘착착착 가족들의 식사 준비를’에서는 대륙본은 생략하였고, 타이완본은 ‘질서 정연하다’란 의미의 성어 ‘有條不紊’로 번역하였다. ‘착착착 진행되는’의 ‘착착착’은 두 번역본 모두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허둥지둥’은 2회 출현하는데, 대륙본은 모두 ‘慌里慌张’으로, 타이완본은 형용사 ‘慌張’의 중첩형 ‘慌慌張張’과 ‘慌忙’으로 번역하고 있다. ‘헤벌레 웃고 있었다’의 ‘헤벌레’는 ‘(笑得)很灿烂’과 ‘燦然’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화들짝 놀라’의 문장이 3회 출현하는데, 대륙본은 의태어 단독으로는 ‘(吓了)一跳’로 번역했고,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번역한 경우는 성어 ‘大驚失色’와 ‘大吃一驚’을 사용했다. 타이완본은 의태어 단독으로는 ‘(嚇了)一跳’와 ‘(嚇了)一大跳’로 번역했고,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번역한 것은 성어 ‘大吃一驚’을 사용했다. ‘휨써’는 17회 출현하고 있는데,

대륙본은 ‘更’ 6회, ‘(형용사)多了’ 2회, ‘(형용사)得多’ 2회, ‘更加’ 1회, ‘还’ 1회, ‘远远(大于)’ 1회, ‘许多’로 1회 번역했고, 3회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타이완본은 ‘更’ 9회, ‘更加’ 3회, ‘還要’ 2회, ‘(형용사)多了’ 1회, ‘遠’ 1회, ‘許多’ 1회로 번역하여, 생략한 것 없이 모든 문장에서 원천텍스트의 의미를 살려 내고 있다.

‘차를 횡 한방에 집어넣었다’의 ‘횡’을 대륙본은 우뢰나 폭음 등을 표현하는 의성어 ‘轰(的一声)’으로, 타이완본은 신속하게 지나가는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 ‘嗖(的一聲)’로 번역하고 있는데, 타이완본의 번역이 더 원천텍스트의 의미와 부합한 듯하다. ‘흔들흔들 희미한 빛을 발하고’의 ‘흔들흔들’을 대륙본은 ‘반짝이다’란 의미의 동사 중첩형태 ‘閃閃爍爍’로, 타이완본은 중첩하지 않은 ‘閃爍’로 번역하였다. ‘힐끗’은 9회 출현하는데, ‘힐끗 살펴보다, 힐끗 쳐다보다, 힐끗 훑쳐보다’란 문장에 쓰이고 있다. 대륙본은 의태어 단독으로는 ‘悄悄’ 4회, ‘偷偷’ 1회, ‘斜着眼睛’으로 1회 번역했고,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번역한 경우는 동사중첩 ‘看了看’을 3회 사용했다. 타이완본은 의태어 단독으로 ‘悄悄’ 3회, ‘(瞟了, 瞥了)一眼’ 4회, ‘偷偷’로 1회 번역했고, 1회는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② 한 번역본은 번역하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번역하지 않은 것

‘냄새가 콧속으로 간질간질 스며들었다’의 ‘간질간질’을 대륙본은 중첩형용사 ‘痒痒’으로 번역해 의미를 살렸으나, 타이완본은 생략하였다. ‘군데군데’는 2회 출현하는데, ‘여자아이들도 군데군데 있었다’에서는 두 번역본 모두 생략하여 그 의미를 살리지 않았고, ‘군데군데 눈과 얼음이 남아 있는 대운동장’을 대륙본은 ‘残留着血迹和冰凌的大操场’으로 번역해 ‘군데군데’를 생략하였고, 타이완본은 ‘四處還有殘雪的大運動場’으로 ‘四處’를 이용하여 여러 곳에 잔설이 남아있음을 살려 번역하였다. 대륙본에서 ‘雪迹’를 ‘血迹’로 표현했는데, 번역 중에 오타가 생긴 듯하다. ‘깜짝 놀라’는 9회 출현하는데, 두 번역본에서 같게 번역한 것은 4회로, 의태어 단독번역은 수식사 ‘(嚇了)一跳’를 2회 사용했고, 수식받는 동사와 함께 번역할 때는

성어 ‘大吃一驚’을 2회 사용하였다. 다르게 번역한 것은 5회로, 대륙본에는 3회 생략하고, 성어 ‘大吃一驚’ 1회, ‘大驚’을 1회 사용했다. 타이완본은 수량사 ‘一跳’ 3회, 성어 ‘大吃一驚’ 1회, ‘大為(驚訝)’ 1회로 번역하여 생략함 없이 원천텍스트 속의 ‘깜짝 놀랐다’는 의미를 살려 내고 있다.

‘검은 구름이 꾸역꾸역 내려오고’의 ‘꾸역꾸역’을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대륙본은 동사와 결과보어로 된 ‘落滿’으로 번역했고, 타이완본은 ‘벌떼처럼 쇠도하다’란 의미의 ‘蜂擁而至’를 사용하여 대륙본보다 시각적인 느낌을 더 잘 살려 번역하고 있다. ‘사람들을 꾸역꾸역 거리로 토해내고 있다’의 ‘꾸역꾸역’을 대륙본은 생략하였으나, 타이완본은 ‘不停’으로 번역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음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 ‘보글보글 올라왔다’의 ‘보글보글’을 대륙본은 기포가 생길 때 나는 소리나 모양을 묘사하는 ‘噗嚕噗嚕’로 번역하여 원천텍스트에서 표현하고자 한 의미를 잘 살렸으나, 타이완본은 생략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휴대폰이 부르르 떨기 시작한다’의 ‘부르르’를 대륙본은 번역하지 않았고, 타이완본은 일부 발성기가 내는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 ‘嘟嘟’의 중첩형 ‘嘟嘟嘟嘟’로 번역하고 있다. ‘식은땀이 비질비질 흘러’의 ‘비질비질’을 대륙본은 ‘不停’으로, 타이완본은 번역하지 않았다. 같은 페이지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라는 표현도 있는데, ‘줄줄’을 대륙본은 ‘涔涔’으로, 타이완본은 역시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비질비질’은 액체가 틈새로 간신히 조금씩 베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끊임없이’라는 의미의 ‘不停’으로 번역한 것은 원천텍스트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 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는 모양으로 번역되어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는 못한 듯하다. ‘줄줄’은 눈물이나 땀 등이 줄줄 흐르는 모양을 묘사하는 형용사 ‘涔涔’을 선택하여 원천텍스트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머리가 비쪽 솟은’의 ‘비쪽’을 대륙본은 옆머리와 뒷머리를 짧게 치켜 올려 깎은 상고머리를 의미하는 명사 ‘(留着)寸头’를 사용하여 번역했고, 타이완본은 생략하였다. ‘비쪽비쪽 위로 뺨친’의 ‘비쪽비쪽’을 대륙본은 생략하였고, 타이완본은 중첩형용사 ‘高高’로 번역하였다. ‘문을 뺨꿈 열고’의 ‘뺨꿈’을 대륙본은 생략하였고, 타이완본은 ‘露出一條細縫’으로 번

역해 문을 활짝 연 것이 아니라 살짝 열어 그 틈새로 상황을 훑쳐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원천텍스트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슬슬’은 2회 출현하는데, 대륙본은 모두 ‘悄悄’로 번역하였고, 타이완본은 ‘슬슬 내 눈길을 피하고’에서는 생략하여 번역하지 않았고, ‘슬슬 근처에 앉아’에서는 ‘悄悄’로 번역하였다. ‘실쭉 웃었다’의 ‘실쭉’을 대륙본은 생략했으나, 타이완본은 ‘입을 삐죽거리다’란 의미의 동사 ‘撇嘴’로 번역하였다. ‘쭈욱 밀어 넣어, 쭈욱 꺼지듯’의 ‘쭈욱’을 타이완본은 모두 생략하여 의미를 살리지 않았으나, 대륙본은 앞 문장의 ‘쭈욱’은 ‘使劲’으로 번역하고, 뒤 문장은 번역하지 않았다. ‘쑥’은 4회 출현하는데, 대륙본은 모두 생략하였고, 타이완본은 2회 생략하였다. ‘쑥 들어가 버릴’의 ‘쑥’은 ‘快速’로, ‘혀를 쑥 빼고’에서는 ‘길게 뻗다’란 의미의 동사 ‘伸長’을 사용하여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번역하고 있다.

‘몸을 오들오들 떨며’를 대륙본은 ‘浑身发抖’로 번역해 의태어 ‘오들오들’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살리지는 않았지만 ‘온몸’이란 단어를 선택해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한듯하고, 타이완본은 ‘微微’로 번역하여 추워서 몸을 작게 떠는 모양을 나타내는 ‘오들오들’의 의미를 살리고 있다. ‘책상 바로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커다란 여행가방에’의 ‘우두커니’를 대륙본은 ‘무표정하다, 멍하다’란 의미의 ‘呆(立在书桌旁的大旅行箱上面)’로 번역해 그 의미를 표현하였으나, 타이완본은 ‘在書桌旁的大型行李箱’으로 번역해 ‘우두커니’를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통통 부어 오르고’의 ‘통통’을 대륙본은 ‘(肿得)很高’로 번역하였고, 타이완본은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파르르 떨렸다’의 ‘파르르’를 대륙본은 떠는 모양을 묘사한 형용사 ‘瑟瑟’로 번역했고, 타이완본은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피식 웃었다’는 2회 출현하는데, ‘피식’을 대륙본은 모두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으나, 타이완본은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噗嗤’와 ‘噗哧’로 번역하였다. ‘휘청 흔들고’의 ‘휘청’을 대륙본은 형용사 ‘沉重’으로 번역하였고, 타이완본은 생략하였다. ‘획’은 3회 출현하는데 타이완본은 3회 모두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고, 대륙본도 2회는 생략하고 ‘획 던져버렸다’에서만 ‘획’을

‘使劲’으로 번역하고 있다. ‘홀깃 쳐다보았다’의 ‘홀깃’을 대륙본은 생략했고, 타이완본은 수량사 ‘(瞥了)一眼’으로 번역했다.

2) 기타 다르게 번역

수식받는 동사 혹은 앞뒤의 문장성분을 함께 다르게 번역한 경우는 62회 출현하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기타 다르게 번역¹³⁾

원천텍스트	번역본
가득(채우고) / 가득(채웠고)	写满(×) / 充满(填满)
깜짝 깜짝 (놀라다) / 깜짝(놀라)	×(大吃一惊) / 大吃一惊(一跳), 大惊(一大跳)
꼬박꼬박(챙기다)	都(从不缺席)
(고개를) 꾸벅 (숙여)	毕恭毕敬(×)
꾸역꾸역 (내려오고)	落满(蜂擁而至)
넬름(내밀었다)	吐出(吐了吐)
등등(떠다닌다면)	飞来飞去(悠悠)
(입을) 딱 (벌린)	瞠目结舌(目瞪口呆)
바싹(아위어) / 바싹(마른)	干巴巴(乾癯) / 干巴巴(極其), 消瘦(乾澀), 干透(×)
벌떡(일어나)	猛(一躍而起)
(머리가)비쭈(솟은)	留着寸头(×)
빙빙(돌았다)	转了转(繞圈)
빙긔(웃으며)	面露微笑(莞爾)
셀쭈(빼친 표정으로)	气呼呼(撇著嘴)

13) 아래 도표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역본 모두 의태어와 수식받는 동사 혹은 앞뒤 성분들을 같이 번역한 것이 있는 경우와 한 번역본에서 의태어만 번역했다라도 다른 번역본에서 수식받는 동사 혹은 앞뒤 성분들을 같이 번역한 것이 있는 경우이다. 밑줄 친 것은 의태어만 번역한 경우이고, ‘×’는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음을 표시한다.

원천텍스트	번역본
선뜻(납득할 수가 없었다)	百思不得其解(百思不解)
스욱(살폈다)	迅速(環顧)
슬쩍(보았다) / 슬쩍(살폈다)	看了看(悄悄) / 看了看(×)
쌩(가신)	完全(毫無)
쭉(빼고)	×(伸長)
쓰욱(일별하고)	看看(一眼)
씩(웃으며)	笑了笑(嗤嗤), 面帶微笑(咧嘴), ×(笑嘻嘻), 笑了笑(嘻嘻) 2, 笑了笑(嘻皮笑臉), 笑了笑(咧嘴)
이리저리(굴러다니는) / 이리저리(부딪히며 내려왔는지) / 이리저리(뛰거든) / 이리저리(움직이며)	四处(四散) / 橫冲直撞(到處) / 乱动(×) / 动来动去(跑來跑去)
질레질레(흔들었다, 저었다)	连连(搖搖) 2
쭉욱(늘여)	迅速(拉長)
쭉(펴고)	伸起(伸直)
착(붙어)	緊(貼身)
쿱(찌르고는) / 쿱(찢었다)	戳了戳(×) / 戳了戳(一下)
텅(빈)	空蕩蕩(空無一人) 2
필쩍(뛰었다) / 필쩍필쩍(뛰며 돌아다니는)	怒气冲冲(大吃一驚) / 活力四射(來回奔躍)
푹(꾸었다)	×(低垂)
홀랑(털어가는)	×(洗劫)
화들짝(놀라)	大驚失色(一跳)
확(끼쳐왔다가)	扑面而来(撲鼻而來)
활짝(웃으며)/ 활짝(열리는)	滿面笑容(開懷大笑), ×(滿面笑容)/ 敞開(大開)
힐끔(보았다)/ 힐끔(쳐다보았다)/ 힐끔(보더니)	扫了一眼(一下)/ 看了看(一眼)/ 看了看(一眼)
힐끗(쳐다보며)/ 힐끗(살폈다)/	看了看(一眼) 2/ 看了看(×)

‘가득’은 4회 출현하는데, ‘개다리춤을 추는 아이들로 가득 차는거예요’

에서는 두 번역본 모두 번역하지 않았다. ‘가득 낀’의 ‘가득’은 두 번역본 모두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가득하다, 짝 깔려 있다’란 의미의 동사 ‘布滿’으로 번역했다. ‘몇 십 권에 달하는 장부들을 가득 채우고’의 ‘가득’을 대륙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함께 ‘寫滿’으로 번역했고, 타이완본은 생략하였다. ‘가득 채웠고에서’는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대륙본은 ‘充滿’으로, 타이완본은 ‘填滿’으로 번역했다. ‘꼬박꼬박 챙기다’의 ‘꼬박꼬박’을 대륙본은 ‘都’로, 타이완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從不缺席’로 번역했다. ‘낼름 내 밀었다’의 ‘낼름’을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대륙본은 ‘吐出’로, 타이완본은 동사중첩형 ‘吐了吐’로 번역하였다. ‘둥둥 떠다니다’란 표현은 2회 출현하는데, 한 번은 두 번역본 모두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바람이나 액체 위에 둥둥 떠다니다’란 의미의 동사 ‘飄浮(漂浮)’로 번역했다. 다른 한 번은 대륙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A來A去’형인 ‘飛來飛去’로 번역했고, 타이완본은 의태어 단독으로 허공에 떠 있는 모양을 묘사하는 형용사 ‘悠悠’로 번역했다.

‘바싹’은 5회 출현하는데, ‘탁발승의 하이쿠는……바싹 야위어 있었다’의 ‘바싹’을 대륙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말이나 글이 무미건조하다’란 의미의 ABB형 형용사 ‘干巴巴’로, 타이완본은 의태어 단독으로 ‘말이나 문장 등이 무미건조하다’란 의미의 형용사 ‘乾癯’로 번역했다. ‘바싹 마른 재생지’의 ‘바싹’을 대륙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바싹 마르다’란 뜻의 ‘干巴巴’로, 타이완본은 의태어만 ‘極其(乾燥)’로 번역했다. ‘바싹 말라 있던 그녀의 음부에, 카악 침을 뱉었다’의 ‘바싹’을 대륙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몸이 여위다, 마르다’란 의미의 형용사 ‘消瘦’로, 타이완본은 ‘바싹 마르다, 메마르다’란 의미의 형용사 ‘乾澀’로 번역하고 있다. 원천텍스트의 의미는 음부가 건조하여 바싹 말랐다는 의미인데, 대륙본은 ‘여위다’란 의미로 잘못 이해하여 오역을 한 듯하다. ‘입이 바싹바싹 말랐다’의 ‘바싹바싹’은 두 번역본 모두 앞뒤에 오는 문장성분과 같이 번역하였는데, ‘입이 바싹 타다’란 의미의 성어 ‘口乾舌燥’로 번역하였다. ‘바싹 마른 열매’의 ‘바싹’을 대륙본은 동사와 결과보어로 된 ‘干透’를 사용해서 수식받는 동사

와 같이 번역했고, 타이완본은 번역하지 않았다.

‘빙(빙)’은 2회 출현하는데, ‘빙 돌아’의 ‘빙’은 두 번역본 모두 번역하지 않았다. ‘빙빙 들었다’의 ‘빙빙’을 대륙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동사중첩형 ‘转了转’으로, 타이완본은 ‘길을 빙빙 돌아가다’란 의미의 동사 ‘繞圈’로 번역했다. ‘빙긋 웃으며’의 ‘빙긋’을 대륙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얼굴에 미소를 띠다’란 의미의 ‘面露微笑’로 번역했고, 타이완본은 의태어 단독으로 빙긋 웃는 모양을 묘사한 형용사 ‘莞爾’로 번역하고 있다. ‘샐쭙 빼친 표정으로’의 ‘샐쭙’을 대륙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화가 나서 식식거리다’란 의미의 형용사 ‘气呼呼’로 번역했고, 타이완본은 의태어 단독으로 ‘입을 샐쭙거리다’란 의미의 동사 ‘撇嘴’에 동태조사 著를 넣어 ‘撇著嘴’로 번역하고 있다. 원천텍스트에서 사용한 의태어 ‘샐쭙’은 마음에 차지 않아서 약간 고까워하는 몸가짐을 하는 모양을 의미하는데, 대륙본에서 사용한 ‘气呼呼’는 ‘화가 많이 나서 식식거리다’란 뜻을 나타내므로 원천텍스트의 의미 보다 과장된 느낌이 든다.

‘스윽 살폈다’의 ‘스윽’을 대륙본은 ‘迅速(扫视)’로, 타이완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사방을 둘러보다’란 의미의 동사 ‘環顧’로 번역했다. ‘졸음이 싹 가신’의 ‘싹’을 대륙본은 ‘(睡意)完全(消失了)’로, 타이완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조금도~이 없다’란 의미의 ‘毫無(睡意)’로 번역했다. ‘쓰윽 일별하고’의 ‘쓰윽’을 대륙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동사의 중첩형 ‘看看’으로 번역했고, 타이완본은 수량사 ‘(看了)一眼’으로 번역하고 있다. ‘스타킹을 쭈욱 늘어 신고’의 ‘쭈욱’을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迅速(穿上)’과 ‘拉長後(穿上)’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두 번역을 비교해 보면 대륙본은 원천텍스트의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타이완본이 제대로 의미를 살려 번역했음을 볼 수 있다.

‘쭈(쭈)’은 4회 출현하는데, ‘쭈쭈 뻗으며, 쭈 찢어, 쭈 뻗었다’에서는 두 번역본 모두 번역하지 않았다. ‘쭈 펴고’의 ‘쭈’을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대륙본은 동사와 방향보어로 이루어진 ‘伸起’로, 타이완본은 ‘곧게 펴다’란 의미의 동사 ‘伸直’로 번역하고 있다. ‘허리에 착 붙어’의 ‘착’을 대륙본은

‘紧(貼)’으로, 타이완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옷이 몸에 꼭 붙다’란 의미의 동사 ‘貼身’으로 번역하였다. ‘쿡’은 4회 출현하는데, ‘불이 쿡 하고 찼다’의 ‘쿡’은 두 번역본 모두 ‘重重’으로 번역했다. ‘쿡 찼다’는 문장이 3회 출현하는데, 대륙본은 3회 모두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동사중첩형 ‘戳了戳’로 번역했고, 타이완본은 동사중첩형 ‘戳了戳’, 수량사 ‘(戳了)一下’, 한 번은 생략하였다. ‘팅(팅)’은 4회 출현하는데, ‘팅팅 빈’의 ‘팅팅’은 두 번역본 모두 번역하지 않았다. 나머지 3회 출현하는 ‘팅 빈’의 ‘팅’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대륙본은 ‘팅 비다’란 의미의 ABB형 형용사 ‘空蕩蕩’으로 2회, ‘팅 비어 아무 것도 없다’란 의미의 성어 ‘空空如也’로 1회 번역하였다. 타이완본은 ‘아무도 없다’란 의미의 ‘空無一人’으로 2회, 성어 ‘空空如也’로 1회 번역하고 있다.

‘펼쩍(펼쩍)’은 2회 출현하는데, ‘아영이 펼쩍 뛰었다’의 ‘펼쩍’을 두 번역본 모두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번역했다. 대륙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다’란 의미의 성어 ‘怒气冲冲’으로, 타이완본은 성어 ‘大吃一驚’로 번역했다. 원천텍스트에서 아영이가 펼쩍 뛰는 것은 친구인 현미가 자신의 엄마가 계모라고 해서 한편으론 놀라면서 한편으론 농담하지마란 의미의 흔히 친한 친구끼리 주고받는 ‘미친년’ 하면서 보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대륙본의 번역인 ‘怒气冲冲’은 원천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해 내지 못했다. ‘펼쩍펼쩍 뛰며 돌아다니는’의 ‘펼쩍펼쩍’도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대륙본은 ‘활력이 사방으로 발산하다’란 의미의 ‘活力四射’로, 타이완본은 ‘여러차례 왕복으로 펼쩍 뛰며 달리다’란 의미의 ‘來回奔躍’로 번역하였다. ‘푹’은 2회 출현하는데, ‘푹 끓인’의 ‘푹’은 두 번역본 모두 번역하지 않았고, ‘고개를 푹 꺾었다’의 ‘푹’을 대륙본은 생략했고, 타이완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低垂’로 번역했다. ‘지갑을 홀랑 털어가는’의 ‘홀랑’을 대륙본은 생략했고, 타이완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한 지역 혹은 한 집안의 재물을) 몽땅 약탈하다’란 의미의 동사 ‘洗劫’로 번역했다.

‘확’은 4회 출현하는데, ‘(냄새가) 확 끼쳐왔다’의 ‘확’을 두 번역본 모두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번역했다. 대륙본은 ‘얼굴에 확 스쳐온다’란 의

미의 ‘扑面而来’로, 타이완본은 ‘(냄새가) 코를 찌르다’란 의미의 ‘撲鼻而來’로 번역했다. ‘확 이혼을 헤버릴까, 확 건어버리고’의 ‘확’은 두 번역본 모두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인상을 확 찌푸리고는’의 ‘확’은 두 번역본 모두 ‘緊(皺)’와 ‘(皺)緊’로 번역해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활짝’은 4회 출현하는데, ‘활짝 웃으며’가 3회, ‘활짝 열리는’이 1회이다. ‘활짝 웃으며’의 ‘활짝’을 두 번역본 모두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번역했는데, 대륙본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란 의미의 성어 ‘滿面笑容’으로 2회, 1회는 생략하였다. 타이완본은 성어 ‘滿面笑容’으로 2회, ‘활짝 웃다’란 의미의 ‘開懷大笑’로 1회 번역하고 있다. ‘활짝 열리는’의 ‘활짝’을 두 번역본 모두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敞開’와 ‘大開’로 각각 번역하였다. ‘힐끔’은 3회 출현하는데, 모두 ‘힐끔 보다, 힐끔 쳐다보다’란 문장이다. 대륙본은 수식받는 동사와 같이 ‘힐끗 보다’란 의미의 ‘扫眼’으로 1회, 동사중첩 ‘看了看’으로 2회 번역했다. 타이완본은 ‘(看了)一下’로 1회, ‘(瞄了)一眼’으로 2회 번역했다.

이상으로 원천텍스트에 396회 출현하는 138개 종류의 의태어를 두 번역본에서 같게 번역, 다르게 번역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38개 종류의 의태어 중 ‘꽝꽝, 달싹달싹, 더덕더덕, 데구르르, 들들, 불룩, 빙, 빼꼼, 우물우물, 축, 킁, 탈탈, 퍼득, 필필, 평평, 획, 흑’등 17개 종류는 두 번역본에서 모두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Ⅲ. 나오는 말

두 번역본의 한국어 의태어 번역 양상을 비교해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천텍스트 속에 총 396회 출현하는 의태어를 대륙본은 309회(78.04%)를 번역했고, 87회(21.96%)를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타이완본은 321회(81.06%)를 번역했고, 75회(18.94%)를 번역하지 않았다. 번역한 것

중 두 번역본에서 같게 번역한 것이 131회(33.1%), 다르게 번역한 것이 212회(53.5%)인데, 다르게 번역한 212회 중 두 번역본이 모두 번역한 경우가 143회이고, 한 번역본은 번역했고 다른 번역본은 생략한 경우가 69회이다. 두 번역본에서 모두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은 경우가 53회(13.4%)이다. 원천텍스트에서 사용한 의태어의 종류는 138개인데, 이 중 두 번역본에서 모두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은 경우가 17개 종류이다.

한국어의 의태어는 한자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유어로서 구어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도 많이 사용되어지며,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이에 비해 중국어는 의태어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두 번역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의태어는 표현의 차원에 속하므로 존재여부가 의미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만, 제대로 번역하지 못할 경우 작가가 의도하는 수사학적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역본에서는 원천텍스트의 의태어를 동사, 형용사, 중첩형용사, 부사, 수량사, 성어, 관용구, 결과보어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번역하고 있고, 원천텍스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한 흔적들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판본의 의태어 번역 양상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에, 동일한 의태어임에도 두 판본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타이완본이 나중에 번역된 만큼 대륙본을 어느 정도 참고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못했다. 한 작품의 상황만으로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 판단되어, 이후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여 후속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中韓辭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15.
- 김영하, 《빛의 제국》, 2판, 문학동네, 2020.
- 박선자·김문기·정연숙, 《한국어 시늉말 사전》, 세종출판사, 2014.
- 정영지, <《혀》와 《고래》속의 의태어 中譯 양상 고찰>, 《언어과학연구》 제86집, 2018.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5.
- 盧鴻金 譯, 《光之帝國》, 台北, 漫遊者, 2019.
- 王劍引, 《中国成语大辞典》, 上海辞书出版, 1995.
- 王振凤, 《韩国语拟态词的特性以及与汉语的对应》, 硕士学位论文, 延边大学, 2007.
- 薛舟 译, 《光之帝国》, 北京, 人民文学出版, 2012.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 《现代汉语词典》, 第6版, 商务印书馆, 2015.

< Abstract >

This thesis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ranslation of Korean mimetic words in the Mainland Chinese and Taiwanese versions of Kim Young-ha's "*The Empire of Light*". In the two translations, the mimetic words of the source text are translated into various forms using verbs, adjectives, overlapping adjectives, adverbs, quantifiers, idioms, and resultative complements. The Mainland Chinese version has been translated 309 times, but 87 of those times, the mimetic words, which appear 396 times in the original text, were not translated. The Taiwanese version has been translated 321 times, and the mimetic words were not translated 75 times. There are 138 types of mimetic words used in the

source text, of which 17 were omitted and not translated in either type of translations. There are more varied translations in both types of translations than translations of the same mimetic words, and there are a few mimetic words that have been omit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ized mimetic word translation guidelines that can be used for Korean-Chinese translations.

Key Words : 빛의 제국(*The Empire of Light*), 의태어(mimetic word), 대륙본(Mainland Chinese Version), 타이완본(Taiwanese Version)

